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9.11.(금)

# 지부교섭 속보

13호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13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 사측이 결단할 때!



### 또 빈손 교섭!

10일(목) 13차 지부교섭에 사측이 또 다시 빈손으로 나왔다. 지난주 교섭에서 한온시스템과 보쉬 개별면담까지 진행했는데도 사측은 이번주 역시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사측은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 사측이 결단할 차례!

지금 남은 쟁점은 공직취임 인정과 개별조합원 간부회의시간 보장이다. 노조의 임원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간부회의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를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다. 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측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양보했다.

그동안 교섭에서 지부는 수차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도 수용 못한다면 교섭할 의미가 없다. 지부는 할만 큼 다 했다. 이제는 사측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다.

### 수용 못할거면 제시하지 마라!

중앙교섭은 다음주에 의견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교섭이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유독 지부 사용자들만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음주 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놓는 제시안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이후 지부 투쟁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섭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용하면 된다. 그 정도도 수용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는 게 낫다.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측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투쟁밖에 없다.

13차 교섭 속기록

# 노조할 권리 인정 안한다는 소리!

**노 :** 모두발언 하도 많이 해서 할 게 없다. 내일모레 추석인데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안돼서 안타깝다. 중앙교섭도 어느 정도 의견 좁혀지고 있다. 다음주 의견접근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부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답답하다. 사전에 오늘 제시안 없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도 만나야 해결점이 나올 것 같아서 교섭 하자고 했다. 그래도 좁혀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 :**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안타깝다. 중앙교섭은 다음주에 마무리 하려는 것 같다. 지부교섭 요구안은 타결시점이 다가오면서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구분되고 있다. 노사간 역지사지로 교섭에 임해서 중앙교섭 타결 이후 지부교섭도 바로 타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양보 많이 해주신 것 알고 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노 :** 오늘 제시안 없다는 거죠?

**사 :** 죄송하다. 개별 회사 면담도 있었고 오늘까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제시안 내려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됐다. 추석도 다가오고 중앙교섭 끝나면 다음주에 끝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회사 안이 부족하더라도 내년에도 교섭할테고, 노사간에 살길을 찾아야 하니 노측 교섭위원이 통큰 결단 내려주면 빨리 끝날 것 같다. 작은 것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작은 걸 함으로써 더 큰 노사발전이 되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측도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에 근접한 안을 만들어보겠다. 다소 못미치더라도 계속 노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통큰 결단 부탁드립니다.

**노 :** 조합은 이미 다 내려놨다고 본다. 공직취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으로 했고, 개별면담에서도 다 얘기했다. 개별조합원 시간할애도 다 열고 얘기했다. 우린 더 양보할 게 없다. 다음주 교섭에서 우리 요구

안 못받을 것 같으면 내지 마셔라. 그게 낫다. 이미 조합은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받는다느니 문제다. 오늘 교섭은 제시안 없으니 이렇게 마치겠지만, 다음주가 추석 전 마지막 교섭이 될 수도 있겠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나마 조합원들이 추석을 마음놓고 갈 수 있게 해줄 것인지는 다음주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어떠한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수정안도 못받겠다고 하면 내지 않는게 낫다.

**사 :** ILO협약 기준에 못미친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하다보니 어렵다. 공직으로 인원이 많이 빠지고 회사는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쉽게 판단 못하는 점이 있다.

**노 :** 처우는 별도 협의하자고 했다.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 지부 요구안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공직취임 인원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합은 충분히 할만큼 했다. 사측이 결단할 일이다. 회의록에 다 남고 지회장들도 다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 :** 조합 얘기 충분히 이해한다. 경영 차원에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ILO 기준으로 풀릴 경우 방어 차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 :** 예전 전임간부 보장할 때 경영이 그렇게 어려웠나? 되돌아봐라. 이게 순수한 임금문제인지 노조할 권리를 막기 위한 방안인지? 전임간부 1~2명 추가한다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 못했다. 이거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다. 오늘 교섭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보자.

**차기 교섭 : 9/17(목) 15시, 한은 교육문화관**